



10년

'완주·우석 전당대' 개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음 3월 18일) 제349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 천변 2길 6번지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사활

산업부 공모 발표 '눈앞' 글로벌 인재양성 등 통해 지역·국가 경쟁력 확보 국내 최대 수준 바이오 대학·연구기관 '강점'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추진되는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충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정부는 2조1,000억원(2024년~2030년)의 예산을 지원해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바이오제조 혁신전략(4월 1일)'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 간에 이뤄지는 바이오 제조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은 격차를 보이는 실정으로, 오가노이드 고도화 및 활용기술의 경우 미국과 유럽이 최고 기술보유국으로 꼽힌다. 세포 기반 질환 모델 기술, 세포 기반 신약 개발 응용 기술, 오가노이드 고도화 및 활용 기술 등에서 70%가량의 기술을 독점하고 있을뿐더러 3년에서 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우수기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허버드 의대(2월 5일), KIST 유럽연구소(2월 26일), 존스홉킨스대학(4월 15일) 등 다수의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2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 남짓 동안 체결한 업무협약만 12건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IST 유럽연구소와 오가노이드 분야 공동연구·기술이전·인력양성·표준교육 등을, 허버드 의과대학과는 바이오이미징 분야에 대한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관계자들이 25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인력양성을 추진기로 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경우 재생의학과 관련해서 임상 및 신약개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의학 및 약학과 관련 대학이 지방 가운데 가장 많은 상황으로, 대학의 경우 지난해 5개 대학교 35개학과에서 1,247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대학원은 지난해 9개 대학원 소재 38개학과에서 251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의·치·약학대(전북대, 원광대), 한의대(원광대, 우석대) 등 이들 대학은 허버드와 MIT와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소재 DB(농식품 기능성소재, 미생물소재, 한의학 소재, Microbiome, 헬스케어소재 및 유전체 등 146만여종) △바이오 분야 연구·혁신기관(27개 기관, 전문인력 3,133명, 연구장비 4,152종) △우수한 비·임상 인프라 Fast-Track 지원체계(국내 최대 영장류 2,700마리, 미니피그 100마리 등) △수준 높은 병원 자원(상급병원 2개소 포함 종합병원 14개소에 3만6,000여명 병상, 인구 천명당 20.3개로 전국평균 12.7보다 높아) 등에 대한 강점 또한 갖춰 전북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무게감을 더

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점에 전북에 등지를 틀겠다는 바이오 기업이 줄을 잇는 상황으로, 오가노이드분야 국내 1·2·3위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유네스트엔바이오, 강스탬바이오텍을 포함해 선도기업 7개사가 2,219억원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식사 마지막 순간까지 공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북이 가진 바이오 관련 강점을 확인한 만큼 지역에 산재된 바이오 역량을 한데 궤어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의 비전을 내거는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선포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또한 바이오 등 특화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면서 "전북은 지역이 가진 강점과 글로벌 수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익산, 5대 1 경쟁 뚫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 국식클 내 2026년 준공
바이오진흥원 등 농생명 혁신기관 간 협력 돋보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시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전북 익산은 식물성대체식품 부문에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포함해 총사업비 10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7년까지 익산시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체식품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관련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에 대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며 관련 실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ISP(분리대두단백) 추출기, TVP(단백질 조직화) 압출성형기 등 대체식품 장비를 도입해 전국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푸드테크 선진국과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체계 또한 구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센터를 거점으로, 대체식품 유관 연구 및 실증, 사업화의 전주기·원스톱 지원의 클러스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협업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술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의 협력 사업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해

결성된 전북 농생명벤처펀드를 통한 기업투자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농생명 혁신기관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준비를 벌여왔다.

지난 2021년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대체육 기반 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푸드테크 이니셔티브 과제 제안, 거버넌스(농생명혁신성장위 푸드테크분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및 푸드테크 전담 조직(바이오진흥원) 구성 등 관련 산업 자원을 확대해 왔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도의회 김대중 의원의 발의로 전북도 푸드테크 육성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도 했다.

도와 익산시는 본격적인 공모 준비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원(식품진흥원), 식품연, 바이오진흥원, 푸드테크 계약학과(전북대, 전주대), RIS 농생명바이오사업단(원광대) 등이 참여한 TF를 매주 운영했다.

또한 익산시는 부지매입과 운영, 기업 유치 및 편의 여건 개선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식품진흥원은 대체식품 세미나 개최, 대체육 장비 기업 지원, 글로벌 클러스터 협력 등 대체식품 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 확보는 익산시뿐 아니라 도,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한 팀이 되어 이뤄낸 성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체식품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의 식품산업이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궤를 달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북에서 성공하는 푸드테크 기업이 늘어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킴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